

작년 技術導入 7백51건 契約

로열티 6억7천6백만弗 支拂

지난해 우리나라의 技術導入 契約件數는 7백51건으로 87년도 6백37건에 비해 1백14건(17.9%)이 增加했다. 또 導入 技術에 대한 代價지불액은 88년도에 6억7천6백여만달러로 87년도에 비해 1억5천2백여만달러(29.1%)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契約된 7백51건의 導入技術中 6백18건은 外資導入法에, 나머지 1백33건은 外換管理法에 근거, 각각 導入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業種別 技術導入件數를 보면 電氣·電子分野가 2백12건(전체의 28.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機械分野 1백95건(25.9%), 化學 1백61건(21.4%), 纖維 52건(6.9%), 金屬 26건(3.5%), 요업·시멘트분야 20건(2.7%) 순으로 나타났다.

技術導入件數를 國家別로 보면 日本이 3백54건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美國 2백건(26.6%), 西獨 49건(6.5%), 프랑스 47건(6.3%) 英國 20건(2.7%) 등의 순이었다.

特許廳 獨立채산제 政府진단 의뢰키로

特許廳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特別會計의 獨立채산제도에 대한 政府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工業所有權의 出願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廳의 獨立채산제행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경영방식에 입각해 行정을 改善하기위해 工所權 행정진반에 대한 종합진단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키로 했다는 것이다.

特許廳은 이를 위해 韓國생 산성본부에 용역을 의뢰, 올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職務分析 業務處理시스템 분석 및 각종 民願節次分析등을 실시, 改善方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최근 현안이 되고있는 審査·審判處理期間을 단축

하는 方案도 모색키로 했다.

大韓辨理士會 論文集 발간

大韓辨理士會(회장 徐大錫)는 최근 工業所有權 論文集 제3집을 發刊했다.

工業所有權에 대한 理論과 學說을 體系的으로 정리하여 制度發展에 기여하고자 不定期的으로 發刊되고 있는 이 論文集은 大法院 判例·先進外國制度·實務과정에서 도출된 理論을 그 기초로하여 發刊된 것이기 때문에 實務家·辨理士시험 준비생·企業體 特許전담요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知的所有權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6배판, 1백80면, 가격은 1만원이며, 연락처는 전화 (02)552-0882.<♣>

변리사 신간 광고 모집

본지는 변리사 및 신간안내 광고에 한하여 특별 할인하여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 광고 규격 및 가격 ◎

- ▲ 내지 전면 :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 내지 1/2면 : 5만원(")
- ▲ 내지 1/4면 : 3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지 편집실(전화 555-6892)로 문의바랍니다.